

챗봇으로 실시간 정보 확인... 빅데이터로 관광객 경로 분석

코로나19 극복에 AI도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AI 전문업체인 와이즈넷과 카카오가 AI 챗봇을 통한 코로나19 정보 제공에 나섰다. 빅데이터 기업인 원투씨엠이 코로나19 관련 방한 중국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긴급대응 연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가 효과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작업에 AI를 투입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AI 및 빅데이터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 등보다 더 빠르게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의 확산 지역과 위험성을 예측한 것이 캐나다 AI 기업인 블루닷으로 알려지면서 AI 기술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와이즈넷 '코로나19챗봇' 오픈 확진자·시설 등 맞춤형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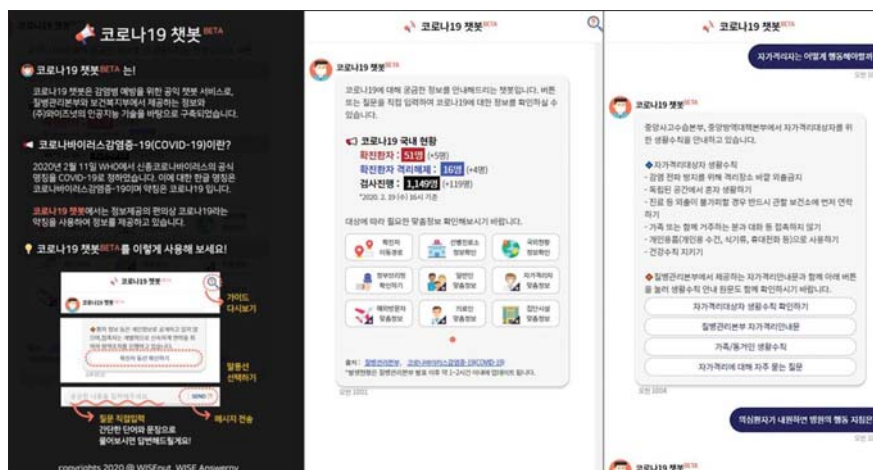
또 중국에서도 AI가 바이러스의 유전자서열 등 예방·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직원 대신 로봇이 식사를 공급하는 등 신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타이완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위해 AI가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통신사들이 감염 경로 예측을 위해 고객 기지국 접속 데이터 및 로밍 데이터를, 카드사들도 결제 데이터를 질병관리본부에 공급하고 있지만 AI 시대에 AI 및 빅데이터 활용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AI 및 빅데이터 기업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에 나섰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AI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와이즈넷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사의 AI 챗봇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챗봇' 베타 버전을 20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챗봇(BETA)'은 와이즈넷의 국내 최대 AI 챗봇 구축 노하우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개 정보를 결합한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챗봇 '현명한 앤서



와이즈넷은 자사의 AI 챗봇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맞춤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챗봇' 베타 버전을 20일 오픈해 정부기관 등에 무료로 연동해주고 있다. /와이즈넷

니'를 적용했다. 기존 서비스가 국민 전체 대상의 FAQ와 확진자 위주의 단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반인, 의료인, 집단시설 등 주요 대상별로 맞춤 정보를 제공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와이즈넷은 전세계적인 재난·위기 속에서 넘쳐나는 무분별한 정보 중 정부가 제공하는 신뢰도 있는 공개 정보를 국민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기관들이 코로나19 정보 제공을 위해 AI 챗봇을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기관 홈페이지와 챗봇의 무상 연동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공공서비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20일 오픈 이후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원투씨엠은 한·중 연계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 플랫폼과 중국 최대 모바일 플랫폼인 '위챗(WeChat)' 플랫폼을 결합해 위챗 공중계정 서비스, 위챗 페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한 중국인의 동선 및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원투씨엠은 1차 분석에서 최근 방한 중국인은 방문지가 서울 5대 권역권(명동, 이대, 아현, 흥대, 인사동, 가로수길)에 64.7%로 집중돼 있으며 다음으로는 제주도 관광소 및 부산 등을 방문했다고 집계했다. 또 2~3명의 소규모 자유여행객이 많고, 그 다음으로 가족 단위의 5~6명이 많다고 설명했다. 원

투씨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한 중국인들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카카오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챗봇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감염 경로, 검사 방법, 치료 등 정보를 문답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최근 '카카오 채널'을 통해 '질병정보알림' 메시지를 총 1752만명의 카카오톡 친구에게 푸시 알림으로 발송했으며, 카카오톡 #합상단 배너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투씨엠, 한·중 빅데이터 활용 방한 중국인 동선·행태 등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AI 기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재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질환 치료제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AI로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의료 AI 기업들이 AI로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해 적합한 항암제를 찾아주거나, 항우울제의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예측해 약물을 찾아주는 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만큼 AI가 약물 효과 예측 등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돼, 정부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항생제 감염 치료법의 최전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싸움이 있다. 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다. 영국의 세균학자이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은 1945년 노벨상을 받으며 "너무 많이 사용하면 페니실린 내성균이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예언대로 지금 인류는 보이지 않는 적 '슈퍼버그'와 싸우고 있다.

슈퍼버그는 항생제가 통하지 않는 균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 슈퍼버그 12종을 발표하면서 매년 70만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50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10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른 경제 피해액은 100조 달러에 육박한다.

2018년 유럽질병통제센터는 슈퍼버그 감염으로 해마다 3만3000명의 유럽인이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슈퍼버그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 폐렴 등에



슈퍼버그

맷 매카시 지음/김미정 옮김/흐름출판

걸린 사람은 9000여명이며 이 중 40%(3600여명)가 사망했다.

책은 항생제 임상시험의 최전선에서 있는 맷 매카시 박사가 항생제 내성 감염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이다. 희소 감염병을 앓고 있는 10대 소녀와 9·11 테러 당시 현장을 지켰던 뉴욕의 소방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여성, 의료진의 처방 실수로 인해 마약 중독자가 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임상시험 참여자들의 생과사를 오가는 치열한 순간이 담겼다. 392쪽. 1만8000원.

진리의 발견

마리아 포포바 지음/지여울 옮김/다른



책은 역사적 인물들의 삶에 인간적 진실을 엮어냈다.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 이야기에서 시작해 과학에서 여성의 길을 닦은 천문학자 마리아 미첼, 뉴욕타임스 최초의 여성 편집자로 여성주의 운동에 불을 지핀 마거릿 풀러, 시인 에밀리 디킨슨을 거쳐 환경 운동을 촉발한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철 카슨에서 끝을 맺는다. 앞서 나간 자들의 불멸의 정신과 조우하는 새로운 전기문학. 840쪽. 4만4000원.

인삼의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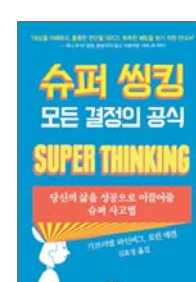
설혜심 지음/휴머니스트



한국의 몸보신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인삼이다. 고려인삼이 유럽에 첫발을 내딛고 서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1617년이니, 말하자면 '최초의 한류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서양 역사에서는 인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서양사학자 설혜심 교수는 의문을 갖고 인삼에 관한 기록을 찾기 시작,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인삼의 역사를 복원해냈다. 서구 문명이 인삼에 어떤 식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덧칠했는지 파헤친다. 464쪽. 2만5000원

슈퍼 씹기

가브리엘 와이버그, 로런 매켄 지음/김효정 옮김/까치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 과소비로 늘 카드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사생활 보호 검색 엔진인 덕덕고의 CEO와 통계학자인 저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한정된 시간 안에 최선의 결정을 하는 법. 464쪽. 1만9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아티스트와 소통... 'K-핸드메이드페어' 11월19일 개막

코엑스에서 나흘간 진행

지난해 5만30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관람객을 동원한 'K-핸드메이드페어'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핸드메이드 아티스트와 팬들과 만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대표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연 2회 개최돼 대한민국 최대 규모 핸드메이드 전문 전시회로 자리잡은 'K-핸드메이드페어2020'에서는 공예부터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인테리어, 패션, 뷰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K-핸드메이드페어 2019' 부대행사장

의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 행사는 특히 아티스트와 관람

객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핸드메이드 팬덤 문화 확산을 꾀한다. 연예인과 캐릭터 등에 국한되던 팬덤 문화를 이번 행사에 출품하는 작가들에게 적용해 핸드메이드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게 목적이다.

최근 SNS를 활용해 형성되고 있는 아티스트와의 만남의 장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관람객들이 평소 관심 있던 아티스트와 그 작품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위 호텔 제주, 흑돼지·고사리 특선메뉴 선보

제주 흑돼지·고사리 프로모션

'위 호텔 제주(WE Hotel Jeju)'가 한라산의 맑은 물과 햇살을 받으며 자란 제주 흑돼지와 제철 제주 고사리를 이용한 '제주 흑돼지와 고사리 프로모션'을 올데이 다이닝 '다채' 레스토랑에서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제주 흑돼지와 고사리 프로모션'은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맛 제주 흑돼지와 따스한 햇볕과 바람이 좋은 청정 한라산에서 나는 통통하고 맛이 일품인 제주 고사리를 이용해 WE 호텔의 4명의 셰프가 각자의 이름을 걸고 메뉴를 선보인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데 특히 제주 고사리는 영양 많고



WE 호텔 제주, 제주 흑돼지와 고사리 요리

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하는 '겉재'라 불렸다. 고사리 예로부터 식용은 물론이고 약용으로도 사용했는데 구충제 대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살균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완화하고 발열 현상을 개선해 주고 암세포가 침착하는 것을 막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 /조효정 기자